

‘원조 천재’ KIA 김선빈, 베테랑의 힘으로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회말 적시타를 치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올린 사우디 알힐랄, 아챔 결승행 좌절

알아흘리에 3-1로 져

광주FC의 도전을 멈춰 세웠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강호 알힐랄이 맞수 알아흘리에 패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알아흘리는 3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준결승에서 알힐랄을 3-1로 꺾었다.

앞서 8강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를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오른 알아흘리는 사우디 팀 간 대결에서 알힐랄까지 돌려세워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른다.

알아흘리는 1985-1986시즌과 2012년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게 역대 최고 성적이다.

알아흘리가 이날 제압한 알힐랄은 이번 대회 최다 우승팀(4회)이자 준우승도 다섯 번이나 차지한 아시아 강호다.

특히 알힐랄은 호화군단을 앞세워 이번 대회 8강에서 광주를 7-0으로 대파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알아흘리에 일격을 당해 대회를 마감했다.

이날도 알힐랄은 미드필더 후벵 네베스를 비롯해 골키퍼 야신 부누, 수비수 칼리두 콜리발리, 공격수 알렉산드로 미트로비치와 말콤 등 선발 출전 선수 11명 중 8명을 외국인 선수로 채웠다.

하지만 1-2로 끌려가던 후반 14분 콜리발리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끝에 결국 기운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멀티 안타 치고 투수에게 투구 조연…그라운드 안팎 ‘MVP’

김도현 “덕분에 승리투수”…김도영 “집중력 높여주는 선배”



‘원조 천재’ 김선빈이 베테랑의 힘으로 후배들과 승리를 만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기본 좋은 승리를 연출했다. 이날 KIA는 장단 14안타를 터트리면서 13점을 뽑는 시원한 공세를 펼쳤고, 선발 김도현은 시즌 첫 승을 거뒀다. 개인 첫 승이기도 했고, 29경기만에 기록된 KIA의 토종 선발 첫 승이다.

김선빈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빛나는 MVP였다. 이날 김선빈은 4안타 3타점의 활약을 하면서 공격의 중심에 섰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김선빈의 활약이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선발 투수 김도현은 김선빈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날 김도현은 5.2이닝 3실점(비자책점)의 기록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6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도현은 손아섭의 땅볼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데이비스는 4구째 헛스윙 삼진. 하지만

12구 승부 끝에 권희동에게 중전안타를 맞았고, 서호철에게 초구 우중간 안타를 허용하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김도현은 이 아닝이 끝난 뒤 김선빈을 찾았다. 김도현은 “6회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권희동 선배님한테 안타 맞고, 6회 끝나고 선빈 선배님한테 바로 ‘이럴 때는 뭐 던져야 해요’라고 물어봤다. 선배가 ‘네가 강한 걸 던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 맞은 구종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김도현이 김선빈을 찾은 이유가 있다. 앞선 삼성전에 김도현은 5.2이닝 10피안타(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6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이날 김선빈이 김도현을 불러 조언을 해줬다.

김도현은 “삼성전에서도 선배가 불러서 말씀해주셨다. ‘김영웅한테 바깥쪽으로 맞으면 억울하지 않냐. 구속도 빠르고 힘도 있는데 몸쪽으로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그래서 이번에 끝나자마자 선배님한테 여쭙봤다. 요새 많이 챙겨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빈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삼성전을 복기한 김도현은 이번에는 승리투수가 됐다.

김도현은 “전 경기에서는 커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는 다양하게 섞어보자 했다. 다양하게 투구를 하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다”며 “연승을 생각하면 부담이니까 1이닝씩만 던지자고 생각하면서 마운드를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도영도 김선빈이 ‘집중력의 힘’이라고 말한다. 김도영은 “내가 선두타자를 싫어하는데 투아웃 상황에서 선배님이 앞에 계시면 준비를 확실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선배가 나가면 볼러들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투타의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김선빈은 “딱히 하는 것은 없다”며 순사레다.

김선빈은 “내가 프로에서 투수를 해본 것도 아니고 도현이한테 타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며 “삼성전에서는 아쉬우니까 이야기를 해주게 됐다. 볼이 좋는데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도현이가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 얼마나 잘하고 싶었나. 욕심도 나고 하나가 질문도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을 집중하게 하는 김선빈, 김선빈은 김도영 덕분에 부지런히 뛰게 된다.

김선빈은 “도영이가 타석에 있으면 ‘죽었다’ 이 생각이다.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도영이가 단타 칠 선수가 아니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며 “도영이한테도 이야기한다.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넘기라고 한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윤영철 카드’로 9연전 풀어간다

NC·한화와 홈 6연전…키움 원정

4일 ‘4일턴’ 김도현 대신 투입

선발진 휴식 취한 뒤 총력전

KIA 타이거즈가 ‘윤영철 <사진>’ 카드로 9연전을 풀어간다.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와의 홈 6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라 고척과의 원정 3연전 일정이 앞당겨져 진행된다.

5-7일까지 9연전을 갖는 KBO는 목요일인 8일 휴식일을 보내게 된다.

실 틈 없이 일정이 전개되는 만큼 마운드 운영이 각 팀의 ‘9연전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윤영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애초 로테이션으로는 29일 선발로 나선 김도현이 4일턴으로 4일 일요일 경기까지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30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일요일 선발은 윤영철을 생각하고 있다. 김도현이 4일 쉬고 등판하는 것보다는 영철이를 넣어서 5일 쉬고 등판을 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체력과 집중력이 중요한 9연전인만큼 선발진이 넉넉한 휴식을 취한 뒤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1일과 3일 비예보가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KIA는 윤영철을 통한 선발 로테이션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프로 첫 해인 2023년부터 선발진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영철은 올 시즌에는 3경기에 나와 5.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면서 15.8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3경기 연속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4월 1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퓨처스리그에서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어린이날 이벤트 풍성

5일 김천상무전, 초등생 입장권 ‘천원’·시민 시축 행사 등

광주FC가 어린이날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광주는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선수들은 인기 캐릭터 톰퐁푸린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포스터>

K리그와 산리오캐릭터즈의 콜라보를 통해 광주에 배정된 ‘톰퐁푸린’은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톰퐁푸린 캐릭터가 전면, 후반, 소매에 부착된 특별 유니폼을 착용한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이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경매 수익금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린이 병동에 기부된다.

광주는 패치, 핀버튼, 짐색, 예코백, 스티커 등 굿

즈도 출시한다.

굿즈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된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 내 MD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광주는 또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1000원에 판매한다.

광주 홈경기를 직접 관람한 어린이 및 부모 중 4명을 선정해 시축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팬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광주의 ‘부주장’ 이자 주전 풀백인 김진호의 K리그 100경기 출장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현재 99경기에 출전한 김진호는 2일 울산전을 통해 ‘100경기’를 달성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광주는 5일 김천전에서 공식 기념행사를 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어린이날 선수촌서 국가대표 만나세요

태릉 스케이트장 등 개방

대한체육회는 5월 5일 어린이날 총복 진전의 국가대표선수촌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전 선수촌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충청타임즈와의 협업으로 ‘어린이날 한

마음 대축제’가 열린다.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며, 주요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견학도 진행된다.

에어바운스, 솜사탕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놀이·체험, 난타와 마술, 댄스 공연 등 각종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해 스케이트 화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국제스케이트장 소속 강사들의 무료 강습 회도 열린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선수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새로운 꿈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